

# 해외에서의 한국학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 한국학 국제화의 가능자... 국내학계 자극주는 책들 잇따라 번역소개

해외한국학 연구현황은 '외화내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92년말 현재 한국학 강좌가 설치된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이 33개국 188 곳에 달한다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조사보고서는 화려한 겉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구수준은 '속 빈 강정'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한국학 전공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동양학·일본학·중국학의 '결가지' 주변학문으로 대접받는 형편이다. 그 결과는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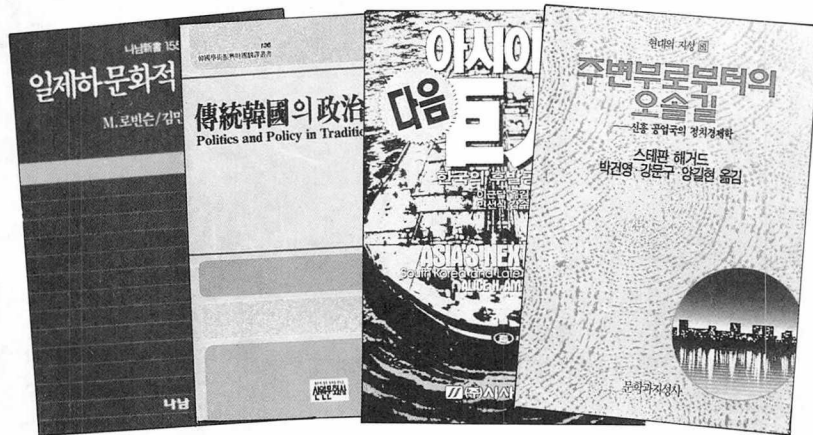
“코리안은 몽고족 계열이며, 6세기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선봉기와 운동화를 수출하는 나라.”

몇해 전, 미국 맥밀런 교과서는 한국을 그렇게 소개했다. 70년대의 일본책을 베낀 흔적이 농후한 대목이다. 외국교과서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시정작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82년부터 외국교과서에 나타난 잘못된 한국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보내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45개국 580여종의 교과서를 검토했다”고 이찬희 부장은 전한다. “그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나 '해외교과서의 한국관 시정 과제' 사업은 일대일 대응의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그 근원처방전은 해외한국학의 활성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국내에서 호평받는 해외한국학 저서 번역돼

국력의 성장과 함께 한국학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국내학계의 논의를 보완하고 때로는 뛰어넘는 연구성과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속 빈 강정'은 그렇게 대두했다. 그러나 그 초라함을 상쇄할 만한 알토란 같은 '名著'들이 차레차레 산출되고, 국내에도 번역소개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 명저들의 고향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미국이다. 이를테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등은 한국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성과는, 한림대 이영익 교수가 「역사학보」 140집에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한국현대사에 관한 한 우리를 앞질렀다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이다.

미국에서의 한국학연구는, 도널드 교수(트리니티대)에 의하면, '선교사시대'로부터 시작, 해방전후 '군정시대'를 거쳐, 50년대 '한국유학생시대'에 이르러 꽃피었다. 그뒤 '평화봉사단시대'를 거쳐 80년대에는 한국계 미



“한국현대사에 관한 한 미국에서의 한국학연구는 우리를 앞질렀다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라는 평가도 있다.

국인과 현지 미국인계로 갈리고, 성향별로 순수학술과와 기업·정책기관에 참여하는 실용파로 나뉘면서 다원화의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에서 한국학을 태동시킨 트로이카인 와그너, 팔레, 레디아드는 “신선하고 대담한 학술”을 내놓아 국내학계에 자극을 주었다. 한영우 교수(서울대 국사학)는 와그너에 대해 “국내학계에 별로 이용되지 않던 호적·방목·족보 등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 조선시대 사회사연구 개척에 큰 공적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방법은 연대기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제도사에 치중하던 국내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던져주었다”는 것. 한교수는 또한 팔레(James B. Palais)에 대해 “그가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왕조체제의 정치적 안정과 장기지속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해명하는 것”이라며 “그의 최대노작인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은 대원군의 개혁정치를 다룬 것으로 한국학계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과제로 남는다”고 평했다.

해외한국학 연구물의 최대 걸작중의 하나로 꼽히는 「傳統韓國의 政治와 政策」(신원문화사)은 작년에 번역됐다. 역사 이훈상 교수(동아대 사학과)는 “한국사 연구의 이정표의 하나로서 꼽아도 좋을 팔레 교수의 저서는 이제껏 국내학계의 관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 저서는 한국학계를 풍미해온 내재적 발전론 및 과학이라는 명분이 조래한 도식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1975년에 출간된 팔레의 이 책은 대원군이 주도한 개혁의 목적과 본질을 조선왕조의 특성과 결부시켜 논의한 저술이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대원군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왕권 강화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원군은 결코 근대적인 개혁가가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보수정치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의 개혁은 실각과 함께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결과 귀족적이며 관료적인 지배가 다시 자리 잡았다고 덧붙인다.

### 아직까지는 미국인 학자에 편중

그의 개혁을 무산시킨 주요한 장애를 저자는 조선왕조의 유례없는 안정과 長壽의 요소인 “형평(equilibrium)”과 “한계조정(marginal adjustment)”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한국근대화의 좌절을 설명하는 데까지 육박한 그의 가설과 비교사학에 입각한 연구시각은 한국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이라든가 세계사적인 일반성을 추출한다는 시도 아래 서양의 사회발전단계론을 한국사에 적용하려는 우리 연구풍토에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사는 말했다. 그는 해외한국학 연구물의 또다른 금자탑인 하버드대 도이힐러 교수의 「한국의 유교화 과정: 사회와 이념에 관한 연구」를 번역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가주대 로빈슨교수(역사학)의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나남)는 최근 미국의 세계사 연구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역사 김민환 교수(고려대 신방과)는 “미국의 세계사 연구는 과거의 정치사·경제사 위주에서 최근 문화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 책은 문화사적으로 접근한 일제시대 한국 언론사 연구물”이라고 소개한다.

이 책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제하 언론을 통해 지식인운동을 살핀다. 국내 태반

의 言論史 연구가 사건을 중심으로 편년사적으로 기술하는 ‘사건사’임에 비해, 문화사적으로 접근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일제하 양대 신문을 통해본 지식인운동 연구이자,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 지형도를 그려낸 셈이다. 저자 로빈슨은 현재 일제하 한국의 유행가·음반·외국영화 등 대중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역사는 전한다. 역사는 이어서 세계각국 자본주의 형성과정의 한 ‘사례연구’로 명성이 자자한 에커트 교수(하버드대)의 「Offspring of Empire」가 번역되기를 희망한다. 전북 고창 김성수 일가를 통해본 한국자본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물이란 설명이다.

암스덴 교수(옥스포드대)의 「아시아의 다음 거인—한국의 후발공업화」(시사영어사)는 “한국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심지어는 후발공업화의 과정을 이미 거친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다. 이 책에 대한 미국에서의 평가는 이렇다. “한국의 경이로운 공업화에 관해 이미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하버드대 레이먼드 버넌 교수) 워낙 알찬 업적이어서 “한국의 공업화를 처음으로 본격 분석한 책”(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이 저술 덕분에 개발경제학이 새삼 관심을 끄는 연구분야로 부상하고 있다”(컬럼비아대 넬슨 교수)는 것. 90년 번역된 뒤 20일만에 2판을 찍는 등 한국독자의 호응을 꾸준히 얻고 있다.

하버드대 스테판 헤거드 교수(정치학과)의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신홍공업국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은 한국학 연구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비교역사학의 방법으로 한국경제발전의 국내외적 맥락을 고찰한 저서로 해외한국학의 추세 및 미래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내 한국학 연구의 제2세대 선두주자의 한 명으로 최근 내한한 마크 피터슨 교수(브링햄대)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비교사적 접근방법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

동아시아 4마리 용과 라틴 아메리카 등 ‘주변부’ 국가들이 어떤 ‘오솔길’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는지를 비교 고찰한다. 대표역자 박건영씨(아태재단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개발독재이고, 좋게 말하면 제도주의적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중식 기자